



책 축제, 세계를 읽자!

1

제2회 서울와우북 페스티벌 성황



지난 9월 22일(금)부터 24일(일)까지 서울 홍익대학교 앞 주차장 거리와 인근 카페, 클럽에서 열린 제2회 서울와우북 페스티벌은 시행 원년이었던 지난 해보다 활기찬 축제 분위기를 연출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사)한국출판인회의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서울시, 마포구, 클럽문화협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마포구에 위치한 약 60여 개 출판사가 참여하고 100여 명의 스텝과 자원봉사자들이 진행을 맡았다.

“시민들에게 역동적이고 즐거운 독서체험을 제공” 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 중에는 책 만드는 버스, 인형극,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 길거리 시낭송, 북 캐스터가 읽어주는 책 등 주최측이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책 관련 소품과 중고서적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프리마켓’이 열려 축제 분위기를 띄웠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책 축제, 세계를 읽자”는 축제 특성을 부여한 테마를 정하고 4개 부스를 할애해 놀이의 장과 더불어 진지한 문화체험을 제공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 1 페스티벌 기간동안 일반인의 활발한 참여로 이목을 끌었던 '외우 책시장' 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행사였다.
- 2 책축제 세계를 읽자 라는 주제 아래 마련된 세계관 부스 "라틴아메리카, 이슬람, 인도권에서는 각 지역 국내출간도서와 멀티미디어자료, 풍물들을 모아 선보였다.
- 3 축제 이틀날(23일) 열린 '강남실·정은숙의 내가 만든 책 이야기'에서는 책 기획과 제작에 얽힌 생생한 체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 4 '나의 이야기를 담은 나의 책' 직접 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공간.



올해로 2회째 열린 '외우 북 페스티벌'은 주최측과 참여 시민들의 성숙한 진행 모습을 보여 시민축제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해할 수 있는 각 분야 양서를 선정, 주요 지역의 역사, 문학, 예술, 인문, 지리, 여행을 포괄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라틴아메리카, 이슬람, 인도 지역에 대한 국내 출간도서와 멀티미디어 자료, 풍물을 모아 각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으로는 출판사들의 참여율이 높아져 부스를 확장하고 서울시 문화재단과 문화관광부에서 후원, 마포구가 긴밀한 협조를 이뤄 주변 상인들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돕는 등 한결 성숙한 행사 진행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을 찾아가는' 축제 목적을 부각, 아직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정착하지 못한 책 축제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라는 평가다.

취재 송보경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